

"약해진 일본에 대한 자각이 극단적 공약으로 표출... 美엔 순응했던 日, 떠오르는 한·중에 불안감 느껴"

이한수 기자

입력 : 2012.11.22 03:00 | 수정 : 2012.11.22 03:58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이진한 기자

"일본인들의 자신감 상실이 역(逆)으로 표출된 것이다.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반면 중국과 한국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국민 정서가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박철희 <사진> 서울대 일본연구소장(국제대학원 교수)은 21일 자민당 공약에 대해 "일시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공약"이라며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은 이웃 국가로부터 고립되는 '문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 공약 어떻게 보나.

"놀라울 정도의 공약이다. 센카쿠 수호,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등의 공약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위협감을 숨기지 않고 표현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자민당 지지 기반은 세 부류였다. 이데올로기 성향이 강한 보수집단, 의사·부동산회 등 이해관계 집단, 지역 장기 거주자 등이다. 그런데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면서 이해관계 집단 지지가 흔들렸고, 급속한 핵가축화 진행으로 이미 지역 공동체도 허물어졌다. 그런 상태에서 이데올로기 집단이라는 '집토끼'라도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이 이 같은 공약으로 발현된 것이다."

—일본 국민이 지지하니까 나온 게 아닌가.

"일본이 약체화하고 있다는 생각에 대한 반작용으로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 쪽으로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 일본에서 과거 '외압(外壓)'이라고 하면 주로 미국의 압력을 이야기했다. 지금은 중국과 한국의 요구를 '외압'으로 생각한다. 일본은 미국의 압력에는 비교적 순응했던 반면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는 부당한 압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내달 총선에서 자민당 집권이 유력하다.

"애초 민주당 내부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방향을 잘못 틀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간 나오토(菅直人) 등 초기 민주당 정권이 동아시아를 강조하고 역사 문제에 사죄 입장을 보인 것이 일본 외교를 약체화했다고 반발한 것이다. 민주당은 자민당 정권의 아시아 무시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권을 잡았는데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민당 식 외교로 기운 까닭에 자민당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자민당을 이롭게 한 것은 민주당 정권 자신이다."

-자민당과 이시하라·하시모토의 제3세력 연합으로 헌법 개정이 될까.

"중의원(하원)에서 헌법 개정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얻기도 힘들지만 얻는다고 해도 바로 헌법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의원(상원)은 현재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민당이 공약을 실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은 사회복지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사용하고 있다. 방위비는 2002년부터 계속 줄고 있다. 강한 방위력을 위해 방위에 산을 늘리려면 사회복지·공공사업비 등을 줄여야 하는데 이익집단의 이해가 걸려 있어 간단히 실행하기 어렵다."
